

황명선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장 물납주식 보유건수는 325건으로 보유금액은 5조 5천억원 규모이다. 매각률은 1.91%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종목은 148개로 해당 종목의 보유액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애초에 매각하기 어려운 주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이 수납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수납 과정에서부터 향후 매각을 고려해서 수납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물납을 허가할 때 경영실적을 고려한 배당을 하도록 하거나, 아예 주주간 계약 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수납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최근 5년간 상속세 세수 및 종류별 물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속세	31,542	39,042	69,448	76,113	85,444
물납계	1,425	864	5,320	828	49,977
부동산	375	380	1,218	694	1,997
주식	1,050	483	4,102	134	47,980

국회의원 황명선

[비상장 물납주식 보유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유건수(건)	338건	345건	335건	325건	325건
보유금액(연간누계)	5,502	5,668	9,265	9,046	55,470
매각금액	676	373	531	606	1,059
매각률(%)	12.29%	6.59%	5.73%	6.69%	1.91%

국회의원 황명선